

2017. WINTER. 겨울호(제3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 조국의 품으로



국유단 10주년
사진으로 보는 2017 유해발굴사업
국유단 창설 10주년 기념, 10 PROJECT

인터뷰
인류학자 진주현 박사
10년의 시간을 추억하며

홍보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
6·25 참전-지원국 유학생 유해발굴 현장체험

행사
전·후반기 사업설명회
하와이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유가족 찾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2017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2018년 계획
2018년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계획

국민과 함께 성과 있고 품격 있는 유해발굴사업 추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이학기 대령입니다. 먼저 올해도 변함없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

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 있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 특별전 「67년 만의 귀향」 전시회를 가졌으며, 최초로 해외거주(하와이) 6·25 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전사자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기틀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전국의 84개 지역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유해발굴사업에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총 513위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발굴 유해 및 유품 분석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9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유해소재 제보에 참여해 주신 참전용사 분들과 지역주민, 직접 발굴에 참여한 야

전 부대 장병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름 모를 산야에서 홀로 남겨진 13만여 위의 호국 용사들의 유해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세대의 고령화, 국토개발로 인한 전투현장의 훼손과 지형의 변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의 어려움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발굴된 국군 전사자 9,957위 가운데에서도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수가 단 1.3%에 불과한 것도 큰 아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6·25 전사자의 유해소재 제보 및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들의 관심은 유해발굴사업의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성과 있고 품격 있는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대령 **이학기**

감사함과 위안,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길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용사들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구의 유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들입니다.” -‘17년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中-

지난 6월 현충일 당시 대통령님의 추념사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조사·발굴·감식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임 이후 지난 11월 처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방문하였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단훈과 함께 ‘마지막 한 분을 모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던 부대원들의 굳은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설 이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열악했던 환경에서 직접 발로 뛰고 부딪혀가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까지 분전고투했던 유해발굴감식단의 노력은 지난 10년의 세월과 함께 고스란히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소식지 3호(겨울호)에 담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6·25 전쟁 당시 산화하신 호국용사들과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고 그들의 희생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과 위안,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이남우**

사진으로 보는 2017 유해발굴사업



3. 22.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주의적 협력의 시발점과 한중관계 우호증진 및 동북아 평화 협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2016년 발굴된 유해 28구를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5. 17. 에스원 MOU 체결

종합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과 국유단이 “호국용사들의 안심귀환”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협력하고자 MOU를 체결하였다.



5. 23.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 단 방문

6·25 전쟁 참전 미국군 전사, 실종장병 유가족이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여 유해발굴사업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5. 30. 대구지역 사업설명회

대구지역의 6·25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6. 11. LG트윈스 시구·시타행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프로 야구단과 협업을 맺어 유해발굴사업 홍보와 시구/시타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6. 22. 미군 유해송환행사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파병되어 추봉 영동에서 전사한 유엔군 유해 1구를 67년 만에 고국으로 송환하였다.



9. 12. 베트남 1237국가지도위원회 단 방문

베트남 1237국가지도위원회 일행이 단과 발굴현장을 방문하여 국유단 유해발굴사업의 노하우를 소개받는 등 군사외교의 한 축이 되었다.



10. 12.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식

국유단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이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10. 12. 호주 국방장관 단 방문

호주 국방 장관 마리스 페인 일행이 호주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해 국유단을 방문했다.



11. 20. 신임 DPAA부국장 단 방문

2005년 4월 대한민국 육군과 미국 JPA(현 DPAA)간의 유해발굴 업무 상호지원에 관한 의사록이 체결되면서 두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상호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11. 24. 인사복지실장 초도방문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부임 후 단에 방문하여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12. 13. 합동봉안식

2017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6·25 전사자 450여위의 합동봉안식이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되었다.

단 창설 10주년 기념, 10 PROJECT



1-1 단 창설 10주년 기념행사

단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유해발굴사업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2 장병·직원 체육대회

단 장병 및 직원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병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2 한·미 공동학술심포지엄

전사자 신원확인 분야의 전문성 함양과 국제적 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관련 전문정보를 교환하였다.



3-1 10주년 특별 전시회 '67년만의 귀향'

유해발굴사업의 역사자료, 발굴 유품,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전시하여 6·25전쟁 전사자를 기리고 국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하였다.



3-2 10주년 특별 전시회 개막식

10주년 특별전시회 개막을 축하하며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커팅식을 진행했다.



3-3 10주년 특별 전시회 주요인사 전시회 관람

'67년만의 귀향' 전시회 개막식 후 국방부 차관, 문체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4-1 예비군 지휘관 초청 전시회 관람

예비군 지휘관을 단으로 초청하여 단 견학과 10주년 특별전시회 '67년만의 귀향'을 관람하였다.



4-2 학군단장 초청 사업설명회

23개 학군단장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초청하여 사업소개 및 업무 발전 토의 시간을 가졌다.



4-3 비상계획관 초청 사업설명회

정부부처 및 주요기관의 비상계획관을 초청하여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5

4. 27.

주한 무관단 초청행사

6·25 전쟁 당시 참전·지원했던 국가의 무관단을 초청하여 유해발굴감식사업을 알리고 해당국 추정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6-1

8. 31.

가족과 함께 하는 유해발굴 출정식

단 장병과 직원 가족들을 초청하여 부대 및 임무를 소개하고, 화합단결 및 임무수행의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6-2

8. 31.

유해발굴 출정식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17년 하반기 유해발굴 출정식을 격려하기 위해 성남윈드 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7

9. 26.

신원확인 통보된 유가족 위문

단 창설 10주년과 추석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유가족분들에게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로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8

11. 15.

해외거주(하와이) 참전용사 증언청취

단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외거주(하와이) 6·25 전쟁 참전용사(70여 명)대상 사업설명회 및 전사자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청취를 진행했다.



9

9. 1~11. 17.

2017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발굴부대 대상 UCC경연대회

단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발굴부대를 대상으로 UCC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최우수 1개 부대, 우수 2개 부대를 선정하였다.



10

12. 27.

단 10년사 화보집 발간

유해발굴사업 10년의 발자취와 단 전체 장병과 직원들의 땀방울이 모인 성과를 기리고 간직하고자 화보집을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인류학자 진주현 박사, 10년의 시간을 추억하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처음 가 본 건 2010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DPAA(2015년 조직개편 전까지는 JPAC으로 불림)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신입 연구원이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2003년에 뼈를 더 공부해 보겠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나는 2010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남편이 있던 하와이로 이사를 가 처음 취직한 곳이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 위치한 DPAA였다.

2011년에 한국전 유해 프로젝트팀이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주요 업무는 팀장으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의 신원확인을 하는 일이다. 북한에서 1990-2005년에 송환된 유해부터 한국에서 발굴된 유해 및 하와이 편지불 국립묘지에 무명용사로 묻혀있던 유해까지, 한국전 관련 유해는 모두 내 손을 거친다. 팀원들과의 호흡이 잘 맞아 매년 서른 구가 넘는 한국전 전사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

내게 이 일은 단순히 뼈를 분석하는 것 이상이다. 조부모님이 흥남부두 철수 때 미군 배에 올라 피난을 오셨기에, 당시 장진호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감식하는 일은 의미가 각별하다. 그렇다고 한국전만 다루지는 않는다. 베트남 정글에 들어가 40일간 텐트에서 지내며 발굴을 했고,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과 중국 호남성 시골 마을에서도 유해를 찾으러 다녔다.



① 인류학자 진주현 박사
② 기자와 인터뷰 하는 진주현 박사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국유단과 참 많은 업무를 함께 했다. 스무 번이 넘는 공동감식, 인제와 양구에서의 공동 발굴, 한미 정례 협조회의, 세계 법과학회 공동 심포지엄.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유해 송환이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하와이까지 와서 한국전에서 전사한 카투사 유해를 모셔갔다. 미군 격납고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2016년 봄날 용산 기지에서 있었던 한미 유해 상호교환도 인상 깊었다. 장진호에서 DPAA가 발굴한 카투사 유해와 국유단이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한 미군 유해를 맞교환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국유단과 DPAA는 10년 전에 첫 인연을 맺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측에서 갓 창설된 국유단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였는데, 국유단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중 7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니 영광이다. 어느새 국유단 감식관들은 먼 친척보다도 더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다. 출장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단장님과 모든 국유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의 앞날이 창창하길 바라며 하와이식 인사로 글을 마친다. 국유단 여러분 모두 알로하! 🇺🇸



3 강원도 양구 백석산 발굴 현장. 국유단 및 현지 국군 지원 부대와 함께

유해발굴감식단을 알리는 일에 저희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선별한 제2기 서포터즈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유해발굴사업을 알렸습니다. 10월에는 국군의 달을 맞아 6·25 참전-지원국 유학생들과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국유단의 존재를 해외에 전파하고 참전용사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2기 서포터즈 21명은 지역별 6개 팀으로 구성되어 8개월 동안 유해발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전국 노인복지회관, 대학교, 지역축제 등 36곳의 기관 및 장소를 방문하여 전쟁의 참상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숭고한 호국보훈

사업을 알렸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8개월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약 3,600명의 사람들을 만나 유해발굴감식사업의 소통 창구로서 국민과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6·25 전쟁 참전-지원국 주한 외국인 유학생 유해발굴 현장체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쟁 참전-지원국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여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UN의 이름으로 국가적인 지원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6·25 전쟁 참전-지원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유단의 숭고한 사업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호국용사들을 추모함은 물론, 상호 국가 간 우호증진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



1



2



3



4



5

1 창설 10주년 기념 부산광안리 홍보 활동 2 호국보훈의달 기념 현충원 홍보 활동
3 노인복지회관 홍보 활동 4 제2기 서포터즈 해단식

5 6·25 전쟁 참전-지원국 주한 외국인 유학생 발굴현장 체험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한발 더 뛰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하루 빨리 호국영웅의 유해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유단은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참전용사분들의 증언청취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증언을 바탕으로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미국 하와이에 계신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하와이에 직접 방문하여, 처음으로 해외거주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및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올해에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호국의 영웅을 찾기 바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듣기 위해 대구와 수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유해발굴 지역에서 발굴한 유품 및 유해발굴 관련 사진 전시회를 마련하여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참전용사의 증언 청취를 통해 6·25 전쟁 당시 전투현장에 남겨둔 전우의 유해소재 증언 청취를 촬영,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하와이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머나먼 땅 美 하와이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110분의 영웅이 살고 계십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타국에 계신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해외 거주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미 정례 실무 협조회의 기간에 맞춰 기획된 이번 증언청취회는 그리운 고향 땅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유해발굴 사업추진 현황 설명 및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긴 세월 잊지 못한 전사·실종된 전우들의 유해소재에 관한 증언을 인터뷰 하여 소중한 조사 자료로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조금은 늦었지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계신 영웅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그리운 전우를 찾기 위해 ‘해외 6·25 참전용사 증언청취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대구지역 사업설명회



2 수원지역 사업설명회 유품전시회



3 미국 하와이 참전용사 증언청취



4 6·25 참전용사 분들과의 만남



60여년 만에 되찾은 그리운 영웅의 이름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수없이 불렸을 이름, 설 새 없이 흘러가는 차디찬 역사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영웅의 이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60여 년 동안 기다리던 영웅의 이름을 유가족 분들의 앞에서 호명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유해발굴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127명의 영웅 분들의 이름을 찾아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올해 후반기에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끈질긴 노력 끝에 여섯 분의 호국영웅이 영광스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중 비군인 참전 노무자 발굴 유해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故김아귀**님은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혼란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하였습니다.


또 한 명의 영웅 **故김창현** 일병은 부인의 임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유수호를 위해 자원입대를 결심했습니다. **故김** 일병의 아내 **황용**씨가 기억하는 영웅의 마지막 모습은 복중의 아이에게 '김인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전장으로 떠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故김아귀님과 **故김창현** 일병 모두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품이 부족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의 끈질긴 신원 추적과 각고의 노력 끝에 영웅의



1 **故 김아귀**님 호국의 열 함 2 **故 김아귀**님 신원확인 통지서
3 **故 김창현**님 호국영웅 귀환행사

이름 세 글자를 온전히 찾아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호국용사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인식표 등의 유품과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4만 명에 그쳐 미수습된 전사자 대비 24%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저희도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2017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발굴기간

2017.
3.13-11.17
(8개월)



투입인원

34개 사·여단
연인원 **10만**여명



발굴지역

양구, 평창, 영천 등
84개 지역



'17년 발굴 유품

인식표 등
48,059점



'17년 신원확인

9위(누계:127위)

아군 전사자 발굴실적

구분	'17년	누계
국군	449	9,957
UN군	1	16
합계	450	9,973

* 2017. 12. 27. 기준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구분	'17년	누계
군부대	1,682	11,764
보건(지)소	408	10,640
기동탐문	1,339	5,285
국유단 (순회, 방문)	643	12,584
합계	4,072	40,273

* 2017. 12. 27. 기준

* 미수습 전사자의 24.6%
(전사자 32,762명 기준 40,273개 확보)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이
어렵습니다!

1
170 170여 개 지점 굴토시
전사자 유해 **1**구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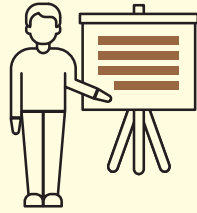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전사자는
발굴 국군전사자의
약 **1.3%**

유가족 DNA 시료채취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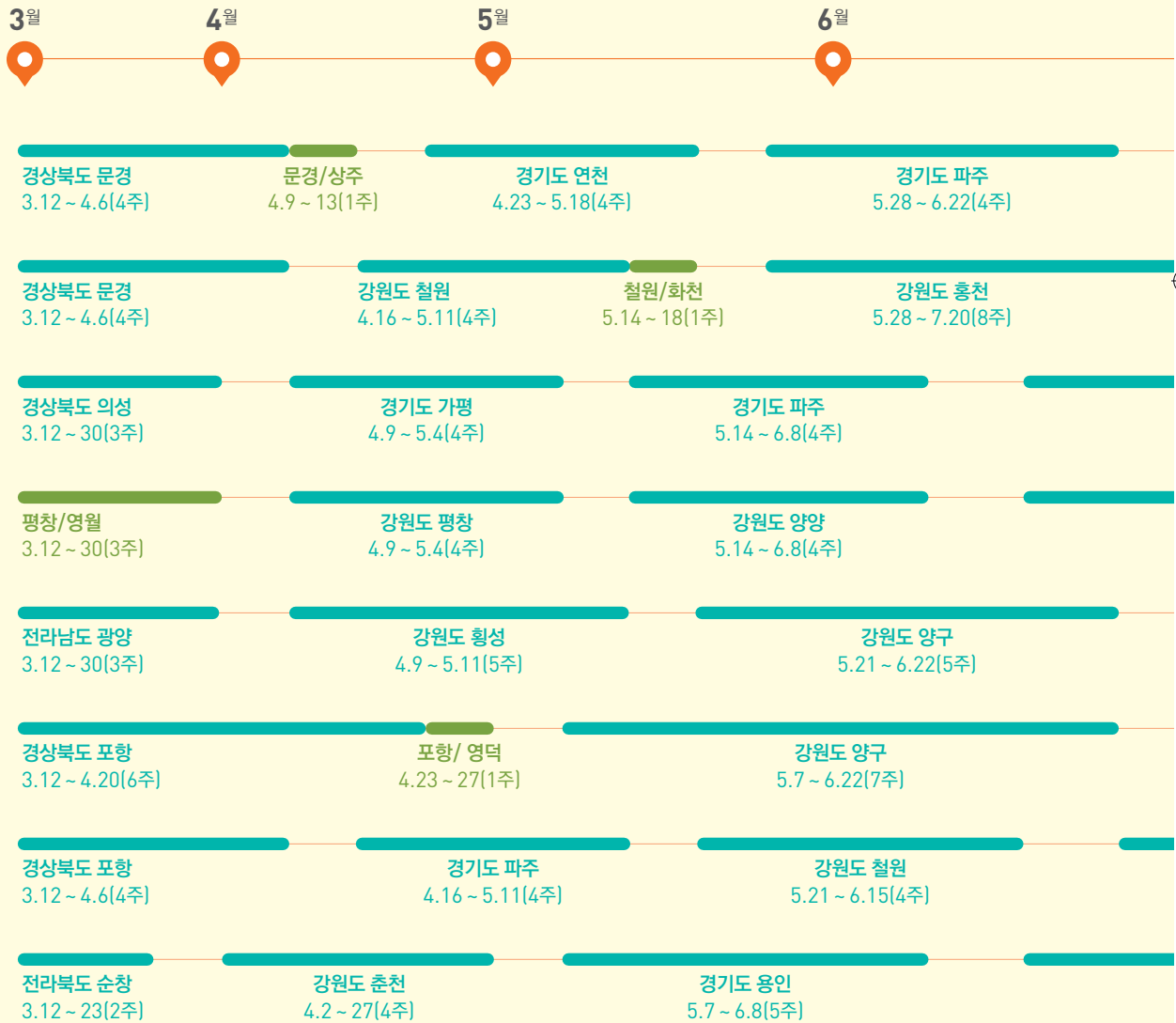
하지만 유가족 DNA
시료채취 숫자는
24.6%
40,273건에
불과합니다.





2018년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계획

2018년 유해발굴계획 제보지역 집중 발굴 제보발굴 및 유해수습



2018년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1 6·25 전사자 유가족 및 보건소, 행정기관 초청 사업 설명회(2회)

3월 창원 / 9월 서울

※ 호국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모신다는 국가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자리

2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5회)

3월 창원 / 5월 미국 LA & 샌프란시스코 / 7월 전주 / 9월 강릉

※ 6·25 전쟁 당시 전투현장에 남겨둔 전우의 유해소제에 대한 증언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녹취 후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

7월

9월

10월

11월

강원도 횡성
7.2 ~ 27(4주)

강원도 양구
9.3 ~ 10.12(5주)

양구/인제/영천
10.15 ~ 26(2주)

경상북도 영천
11.5 ~ 16(2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가평/ 화천/ 철원
7.23 ~ 27(1주)

강원도 강릉
9.3 ~ 10.12(5주)

경상북도 영천
10.22 ~ 11.16(4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경상남도 창원
6.18 ~ 7.13(4주)

가평/ 화천/ 철원
7.23 ~ 27(1주)

경기도 연천
9.3 ~ 10.5(4주)

경상북도 칠곡
10.15 ~ 11.16(5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강원도 화천
6.18 ~ 7.20(5주)

가평/ 화천/ 철원
7.23 ~ 27(1주)

포천/화천/철원
9.3 ~ 21(3주)

강원도 화천
10.1 ~ 11.2(5주)

포천/철원
11.5 ~ 16(2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강원도 인제
7.2 ~ 27(4주)

경기도 수원
9.3 ~ 10.12(5주)

파주/고양
10.15 ~ 11.16(5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세종특별자치시
7.2 ~ 20(3주)

영동
7.23 ~ 27(1주)

강원도 인제
9.3 ~ 10.12(5주)

양구/인제/가평
10.15 ~ 11.16(5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강원도 고성
6.25 ~ 7.20(4주)

영동
7.23 ~ 27(1주)

경기도 가평
9.3 ~ 10.12(5주)

충청북도 영동
10.22 ~ 11.9(3주)

청주/영동
11.12 ~ 16(1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강원도 인제
6.18 ~ 7.27(6주)

파주/고양
9.3 ~ 21(3주)

세종특별자치시
10.8 ~ 11.2(4주)

파주/고양
11.5 ~ 16(2주)

연천/문경
상주/대구
11.19 ~ 23(1주)

※ 부대운용에 따라 발굴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제보해주세요!
(제보전화 1577-5625)

유해 발굴시 포상금 지급 (최대 70만원)

2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등대방문채취 보건소, 군병원방문 채취시 **무료 건강검진 제공**
전화신청시(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직접 채취)
현역장병은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문화상품권·위로휴가 제공

3 비군인 참전사실 확인 사업

<6·25 전쟁 비군인 참전유공자를 찾습니다>

- 대상
정용된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유격대원,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정보원, 청년단, 호국장병, 종군기자, 철도·소방·법무공무원 등
- 예우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월 22만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등

※ 상담 전화

국가보훈처 민원센터 : 1577-0606
국방부 참전업무담당 : 02-748-5239 / 5123

4 유골 없는 자 국립묘지 안장 절차 안내

<유골 없는 6·25 전몰자도 국립묘지 위패봉안 가능>

- 대상
 - 분가봉송 후 유가족이 산골하여 유골이 없는 경우
 - 묘지를 개장하였으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서류상 분가봉송을 하였으나, 유가족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경우
 - 분가봉송하여 매장된 유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담 전화

국립서울현충원 : 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 : 042-820-707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AKRI)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0698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대표번호 1577-5625 www.withcountry.mil.kr

디자인 (주)풍경인소풍 070-7433-1123 표지 글씨 이상현(캘리그래피 작가) 간침·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 기무사령부 ☎1337